

300-5-123. 신문조서(權榮台 외 33명 치안유지법 위반) 5

■ 權榮台 외 33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기록 수록(문서 300-5-119부터 계속)

- 1935년 4월 2일 예심계 관사의 鄭泰植 3회 被告人 신문조사가 진행되었다. 4일 鄭泰植 4회 피고인 신문조사가 있었고, 鄭泰植 외 6명과 박문홍 외 5명의 구류기간 갱신과 증서가 송달되었다. 4월 8일 韓文洪 3회, 金大容 3회의 피고인 신문조사가 있었고, 4월 9일 金普成 3회, 安秉潤 3회 피고인 신문조사가 있었다. 다음에 檄文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메이데이에 관한 것, 創刊誓言·선서, 유기적 관련 形成 등으로 長文이다.
- 4월 11일 權榮台 3회, 12일 權榮台 4회의 피고인 신문조사가 있었고, 15일 安鍾瑞 3회, 16일 徐升錫 3회, 朴昇義 3회, 17일 金喜鎭 3회, 崔慶玉 3회, 18일 李明新 3회 피고인 신문조사가 있었으며, 鄭泰植 외 13명의 西大門刑務所 收監 결정이 있었고, 증서가 송달되었다. 4월 22일 李元泰 3회, 24일 許均 2회 피고인 신문조사가 있었고, 제감결정이 있었다. 각자의 지문채취가 수록되어 있다.